

불교계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

교계 단체 연합 대책기구 구성·모금 운동 등 전개

“지금까지 스님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000여 명이상이 군부에 의해 납치·감금됐습니다. 군부는 젊은 스님들의 집회 참여를 막기 위해 큰스님을 무참히 죽이고, 군홧발로 법당에 난입해 불상을 부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얀마의 불교문화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한국 ‘버마행동(Burma Action)’의 푸라(Thu Pa)씨가 전하는 미얀마의 현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스님과 시민들에 대한 군부정권의 무차별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불교계에서도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회연대위원회와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국제포교사회 등 불교단체들은 10월 10일 ‘불교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조계사에서 지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앙

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불교대책위원회는 사태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국내외에 알려 불교인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 국제불교단체들과 연대해 국제여론에 호소하고 항의방문단 구성, 기금모금 등의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얀마 성지 순례 여행사에 대한 철수 요청도 검토 중이며, 전국 순회강연과 사진전을 개최해 실상을 알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2일에는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을 비롯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3200만원을 버마민주동맹(NLD) 한국지부에 전달했다. 이날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소속된 민족의화해와통일을위한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효민, 이하 종교인협의회)도 서울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열고 무력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종교인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무력탄압 즉각 중단 및 시위 참가자의 인권과 안전

보장 △아웅산 수처여사의 가택연금 해제 및 정치범들의 석방 △폭압적인 군사독재체제 종식 및 평화적인 정권이양을 촉구했다.

단체들의 성명도 잇따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자승 스님과 중앙종회 총책임자인 화엄회·무차회·금강회·보림회는 9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구속된 스님들을 석방하고 모든 권력을 민간에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민주화운동에 모든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참여불교재가연대는 9월 27일,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과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9월 29일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미얀마 군사정권의 폭력시위진압을 비난하고 국민에 대한 정권 이양을 요구했다.

9월 22일 정부의 급격한 유가 인상으로 촉발된 미얀마의 반정부시위는 군부의 유훈단압과 군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으로 곱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현재 스님을 주축으로 한 가두시위 대신 또 다른 방식의 시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동우·여수경 기자 snopy@buddhapia.com



조계종 총책임자 화엄회와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10월 2일 호치민외국어정보대학교 강당에서 지역민 100명에게 장학금 1만 달러를 수여했다.

화엄회, 베트남에 교육·복지 시설 건립

고엽제 피해자·장애인 등에 장학금 지원도

조계종 총책임자 화엄회(회장 지명)가 베트남에 교육·복지 시설을 건립한다. 또 고엽제 피해자를 비롯해 고아, 장애인 등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전달한다.

화엄회와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사상 자승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직업기술학교, 고아원, 연수원 등을 갖춘 교육·복지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호치민시 구찌엔, 동안성, 푸응후, 파이닝성 쉼우안원 등 베트남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토지 4곳을 답사한 후 호치민시 시내에 인접한 나베 지역의 2헥타르를 우선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시설에는 먼저 직업기술학교가 들어서며, 연

수원, 법당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화엄회는 10월 2일 호치민외국어정보대학교 강당에서 고엽제 피해자, 장애인 등에 장학금 1만 달러를 수여했다. 화엄회는 매년 100여명을 선발해 지급할 예정이다.

화엄회는 이번 방문에서 베트남 불교협회 지도자 등과 면담을 통해 양국 불교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2일 호치민시 불교협회 회장단과 면담한 자리에서 호치민 불교협회 부회장 닛판광 스님은 “한국불자들이 베트남 불자와 국민을 위해 교육과 복지 분야를 후원해 주시길 감사하다”며 “화엄회와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진행하는 베트남 현지 교육

복지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화엄회는 1일 베트남 고엽제피해자협회 회장단, 장애인단체 대표, 복지시설 대표자 등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두 나라의 민간교류 확대를 다짐했다.

화엄회는 2004년 발족과 함께 국제교류활동 등 10대 정책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몽골, 미얀마 등 3개국을 선정했으며, 2006년 베트남을 우선 국제교류 국가로 선정했다.

베트남 방문에는 화엄회 고문 자승, 운영위원장 성직, 부회장 성철, 부회장 정목, 대변인 돈관, 간사 덕민, 스님과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 성은 스님 등 7명의 스님이 참여했다.

남동우 기자

불자여성 리더를 위한 리더십 심화과정 신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 산하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은 여성리더십교육 심화과정을 신설,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여성리더십교육은 2005년부터 기본교육이 진행돼 지금까지 3기가 수료했다. 심화과정에서는 불자여성 리더들의 자기 계발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과 사회적 역할 증대에 필요한 리더십 기법 등의 프로그램이 더해졌다. 자비명상전문가 마가 스님(한국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과 김남선 소장(참교육상담소), 진민자 이사장(사단법인 청년여성문화원) 등이 강의를 맡는다.

심화과정은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조계사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된다. 선착순 50명 모집이며 참가비는 12만원.(02)722-2101 여수경 기자

“종교인 장기기증 인식 바꿔야”

생명나눔, 세미나 개최

종교인은 장기기증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 불자들의 장기기증 현황과 인식은 어떠한가.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이하 생명나눔)가 10월 19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생명나눔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3개 종교 장기기증 단체와 함께 종교인들은 물론 사회 전반의 장기기증 인식을 바꾸려는 취지로 이

러 세미나를 기획했다. 현재 우리나라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인구 100만 명 당 2.6명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생명나눔 정책자 사무총장은 “아직 사회적으로 뇌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장묘문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장기기증 성사율이 낮은 것 같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대국민 인식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아대 이상목 교수가 ‘종교인의 뇌사 및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사립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 박진택 목사가 ‘종교가 장기기증에 미치는 영

향과 참여도’,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김명재 교수가 ‘한국인의 심장과 관습이 장기기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질 토론에서는 △장기기증 활성화 방법 △장기기증의 종교적 접근 방법 △장기기증 홍보 태도의 문제점 또는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토론자로는 천주교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은 스님, 성서교회 담임목사 방인성 목사가 나설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장기기증 대국민 인식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진행된 세미나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것이다. (02)734-8050 김강진 기자

그림이회 두번째 회원展 개최

불화 그리기 아마추어들의 모임 그림이회(회장 신영길)가 두 번째 회원전을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불일미술관에서 연다. 지난 2004년에 이어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소속 회원 6명의 후발통화 영산회상도 수필관공도 등 전통불화 25점과 40여점의 소품이 출품된다. 임연태 기자

I Love Buddha /자신에게 맞는 웃음기
 용정운(www.zentoon.com)

가을... 자연은 저마다 계절에 걸맞은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더욱 높아진 하늘하머... 누렇게 익어가는 벼이삭들...

여름내 무성하던 푸른 잎사귀 누어버리는 나무...

어리석은 인간만이 제 몸에 맞지 않는 옷 걸치려 함귀의 하는구나... 제 몸이 타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친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들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K&M(주)경민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275,000(소비자기격) 입금계좌:기업은행 018-072448-01-015 [예금주:정승혁]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 108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평생염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편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시판하고 있어 화제되고 있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분을 만들고 석분이마에 영험을 받기 위해 백수정을 집어내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광명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만 있어도 평생행운과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풍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진보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사업을 하고 계신 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 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신 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 편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백수정 108염주와 특별선물로 일반인에게는 손목띠를 스님에게는 합장주를 드립니다.

가격 95,000원 전화: (02)741-4477
 농협:053-02-228720 이진경

평생부자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명예를 얻는 영험의 지갑!!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이 다 뜻대로 되지 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사중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는 대비신력(大慈悲力)의 각종비방의 법구와 진언이 많이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는 신묘(神妙)법구에는 “보병”과 “반장”이 있고 진언으로는 “육자대명왕진언”이 있다. 불경에 지혜로운 중생은 빨리 깨달아 15가지 제약을 물리치고 15가지 무량대복을 받아 광명을 쌓으며 그 이름이 세상에 빛날것이라고 했다. 불경에 맞춰 신묘(神妙)법구를 넣어 모든일이 풀리게 만든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大慈悲力)의 신통한 중지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역난도 다 소멸되며 불교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처하고 영인의 조화로 만사가 풍요로워지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생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반지갑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제사용 백연화 강신향로
 99% 황동으로 제작! 후손에게 물려줄 가보!

제사를 지내는 의식중에 제일 중요하고 엄숙해야 할 의식이 첫번째로 분향이다. 신위(神位)에서 오시도록 황토에 향을 피워 인도하는 의식으로 제사용으로 강신(降神)이라 한다. 강신은 제주(祭主)를 위시하여 제사에 참석할 모든이들이 신위 앞에 선다음 제주는 무릎 꿇어 황토에 분향을 한다. 이때 신위께서는 천기지 눈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후손들이 행동가짐도 바르게 해야하고 음식도 정갈하게 하며 향도 또한 동불모양등의 조각이 없는것을 사용해야 한다. 백연화 향로는 하얀 연꽃이란 뜻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신위(神位)를 모신다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향로다. 불심사에서 제작한 백연화 향로는 99%황동만으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흰연이 지나도 변색 변질 되지 않게 빠른 위시까지 처리 하였다. 지지손은 가정의 부와 명예를 얻게 일곱봉우리의 백연화가 향로에 피어있고 후손의 가정가정마다 만사행통과 건강장수하게 육자대명왕진언을 넣어 가정의 천년가보로 품위있게 제작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제사때 품위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98,000원 전화:(02)741-4477 농협:053-02-228720 이진경

名品향로
 규격:높이14cm, 폭18cm, 무게1kg